

# 조선후기 ‘무등산권 赤壁’ 공간의 문학작품 연구

김 대 현\*

## 차 례

1. 머리말
2. 17세기 무등산권 赤壁 문학
  - 2.1. 적송 정지준의 赤壁 문학
  - 2.2. 농암 김창협외의 赤壁 문학
3. 18세기 무등산권 赤壁 문학
  - 3.1. 담헌 이하곤의 赤壁 문학
  - 3.2. 다산 정약용의 赤壁 문학
4. 19세기 무등산권 赤壁 문학
  - 4.1. 난고 김립의 赤壁문학
  - 4.2. 매천 황현의 赤壁 문학
5. 맺음말

## | 국문초록 |

임진왜란이 지난 조선후기에도 무등산권 화순 적벽은 많은 문학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었다. 이는 16세기 적벽이 문학공간으로 인식된 이후에도 여러 문인들에 의하여, 그 문학공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주요한 적벽문학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7세기 전반에는 우선 창원 정씨 가문의 문학이 주목할 만하다. 그 가문은 16세기부터 적벽과 가까운 곳에 터를 잡으면서, 점점 적벽의 중심부로 들어가며 자리 잡았다. 그래서 17세기 전반엔 적송 정지준이라는 적벽 문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17세기 후반에는 안동 김씨 가문의 적벽 문학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적벽 문학을 경향으로 널리 알리는 큰 역할을

\* 전남대학교

하였다. 문곡 김수항이 진도로 유배를 왔는데, 그의 아들인 농암 김창협 등이 부친을 찾아 왔다가, 적벽을 경유하여 귀향을 한다. 이때 적벽 관련 작품을 남기면서, 그 작품이 이후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후대의 많은 문인들이 농암 김창협의 적벽 시에 차운을 한데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18세기 전반에는 담헌 이하곤의 적벽 문학이 중요하다. 그는 호남 유람 일기인 「南遊錄」을 썼는데, 그 한 부분이 적벽과 관련한 기록이다. 그 뿐 아니라 「赤壁歌」라는 57구의 장편시를 남겨서, 적벽 유람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 18세기 후반에는 다산 정약용의 적벽 관련 작품이 남아 있다. 다산은 부친이 화순 현감으로 오자, 함께 따라와서 화순의 東林寺에서 독서를 한다. 그러면서 무등산도 올라가고, 또 적벽을 유람하기도 한다. 적벽에 가서는 「遊勿染亭記」라는 작품을 비롯하여, 적벽 관련 한시를 몇 수 남겼다.

19세기 전반에는 난고 김립, 즉 김삿갓의 한시가 적벽 문학으로 중요하게 거론될 만하다. 그는 화순에서 마지막 십여 년을 소요하다가 운명을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그렇게 전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가 적벽을 방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적벽이라는 문학공간의 힘이 사회비판적인 그의 발걸음을 끌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그는 적벽 관련 東詩 작품을 몇 수 남기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매천 황현이 그의 나이 41세에 적벽을 유람하고 관련 작품을 남긴다. 한시뿐만 아니라 「赤壁記」라는 작품도 남겨서, 적벽 산문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 17세기·18세기·19세기에도 많은 무등산권 적벽 문학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논문은 그 가운데서 일부 중요한 작품들을 시대별로 몇 가지 골라서, 그 내용과 문학적인 성취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핵심어 : 적벽(赤壁), 적벽문학(赤壁文學), 무등산권 적벽(無等山圈 赤壁), 화순 적벽(和順 赤壁)

## 1. 머리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공간의 하나가 바로 ‘赤壁’이다. 일찍이 중국의 적벽에서 기원한 이 공간은 한국이나 일본에도 여러 군데 문학공간으로서의赤壁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적벽 가운데, 비교적 많은 문학 작품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 한국의 무등산권 和順 赤壁 공간이 아닌가 여겨진다. 16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도, 더 나아가 20세기에도 무등산권 화순 적벽은 쉬

지 않고 문학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었다.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학공간의 한 핵심요소인 누정이 잇따라 건립되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여겨진다.<sup>1)</sup> 따라서 무등산권 화순 적벽은 한국의 어느 적벽보다 더 중요한 문학공간으로 발전하여 나갔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몇 해 전 「조선전기 '무등산권 赤壁' 공간의 문학 작품 연구」라는 논문을 통하여, 임란 이전의 조선 전기에 이루어진 적벽 공간의 문학 활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 바 있다.<sup>2)</sup> 지금 일반적으로 '화순 적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보다 좀 더 넓은 단위에서 '무등산권 적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에 '무등산권 赤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한 최근에 무등산은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등,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있다. 본 논문은 이를 이어서 임란 이후 17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조선후기에 전개되었던 적벽 공간의 문학 활동과 그 작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赤壁은 잘 알다시피 중국의 三國時代 『三國志』의 무대였던 양자강 유역의 적벽 공간에서 비롯되었다. 宋代에 이르러 소동파의 「赤壁賦」라는 유명한 적벽 문학이 형성되면서, 또 이 작품이 널리 퍼지면서 적벽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학 공간으로 성장하여 나간다.<sup>3)</sup> 한국에서는 15세기 漢江 유역의 蠶頭峰

- 
- 1) 옛 동북현을 포함한 화순 지역은 200여 곳이 넘는 누정이 있었다. 김대현 외, 『호남누정 기초목록』,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편, 전남대출판부, 2015 참조.
  - 2) 김대현, 「조선전기 '무등산권 赤壁' 공간의 문학작품 연구」, 『한국고시기문화연구』 34, 한국고시기문화학회, 2014.
  - 3) 최근 정세진, 「14-16세기 조선과 일본의 蘇軾 관련 詩會와 그들이 공유한 蘇仙의 의미」, 『중국문학』 86, 중국문화회, 2016년에 한국과 일본의 소동파 관련 문학 활동이 잘 설명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 이미 들어와서, 『白雲小說』, 『破閑集』 등 여러 문헌에 그 수용 모습이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세종 1년 1455년에 조맹부가 쓴 赤壁賦 楷書 교본이 인쇄되어서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 조규백, 「고려시대 문인의 소동파 시문 수용 및 그 의의(1)」 『퇴계학과 한국문화』 3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조규백, 「고려시대 문인의 소동파 시문 수용 및 그 의의(2)」 『퇴계학과 한국문화』 40,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7 및 김주순, 「蘇東坡(赤壁賦)對朝鮮漢詩的影響」, 『중국문화연구』 16, 중국문화연구학회, 2010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을 적벽 문학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적벽 문학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한국에는 약 7, 8 군데 적벽공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문학적인 성과가 비교적 크게 이루어진 곳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앞서 말한 바처럼 바로 ‘무등산권 和順의 적벽 공간’이라고 여겨진다.

조선 후기 무등산권 화순의 적벽 문학도 임란 이전 여러 문인들의 적벽 문학을 이어 받으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매우 풍성하게 발전하여 나간다. 그 작품은 이름난 문인의 작품부터, 현재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문인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7세기부터 시작하여 세기별로 무등산권 화순적벽 공간에 작품을 남긴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몇 가지 들면서 간단하게나마 일별하여 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은 향후 적벽 문학을 시대적으로 구성하는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 2. 17세기 무등산권 赤壁 문학

임란 이전의 적벽과 임란 이후의 적벽, 그 산천의 모습은 달라진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공간으로서의 적벽에 좀 더 다가가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적벽은 일찍이 임란 이전 16세기에도 이미 유람의 명소가 되었다. 霽峯 高敬命의 「遊瑞石錄」에서 보이는 것처럼, 또 나주 목사로 있었던 鶴峰 金誠一이 1586년에 적벽을 유람하고 남긴 「遊赤壁記」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 16세기 후반 적벽 공간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그렇던 적벽은 임란 이후에 산천 유람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 다가갔던 일이 특기할 만하다. 그 곳에 바로 昌原 丁氏들의 생활 현상이 있었다. 여기에서 파생된 적벽 문학이 17세기 적벽 문학을 열어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17세기 후반에는 농암 김창협이 적벽 작품이 있어서, 후인들에게 오랫동안

동안 차운되어 대표적인 적벽 문학으로 널리 발전하여 나간다.

물론 17세기에는 이들 외에도 玄谷 趙緯韓, 玄洲 趙纘韓 형제의 적벽시들, 동북 현감을 하였던 설월당 김부륜의 아들인 溪巖 金垓의 적벽시, 芝村 金邦杰 등 여러 문인들의 적벽시가 남아 있다. 여기서는 우선 적송과 농암의 적벽 시를 통하여 17세기 적벽 문학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1. 적송 정지준의 赤壁 문학

앞서도 말했지만 창원 정씨는 적벽 문학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적벽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던 문중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 태종대에 丁仁禮가 화순군 北面으로 낙남하였는데, 그가 곧 창원 정씨 同福 입향조이다. 그는 백야산에서 발원한 남치[藍川] 가에 月迎亭을 짓고 은거하였다고 한다. 현재 그의 문집은 남아 있지 않아서 그의 문학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살필 수 없지만, 그 후 창원 정씨 문중에는 많은 문학가들이 이어진다.<sup>4)</sup>

여기서는 17세기 전반 적벽 문학을 열어간 赤松의 문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임란 이후 적벽 문학의 서막을 연 이는 바로 赤松 丁之雋(1592 - 1663)이었다. 그는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동북, 옥과, 화순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진군하였다.<sup>5)</sup>

그는 본래 압해 정씨에서 나와서 창원군 寬의 11세손이 되었다. 적송의 조부인 창랑 정암수는 임진왜란 당시 고경명과 함께 금산의 전투에 참여하였다.

4) 16세기에 이르러 창랑 정암수(1534-1594), 17세기의 적송 정지준(1592-1663), 19세기의 용암 정혁(1824-1883), 20세기의 지암 정만용(1881-1952) 등은 이 문중의 대표적인 문인들이었다. 특히 지암은 20세기 ‘赤壁吟社’를 이끌어 문학공간으로서의 적벽문학을 마지막까지 발전시켜나갔다. 이런 내용은 정규철의 『역사앞에서』(심미안, 2013)에서 잘 알 수 있다.

5)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모습은 『湖南節義錄』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이 책의 「壬辰義跡」에 그의 부친인 정유성의 조에 세주로 ‘아들 지준이 병자란 때 창의하였다’고만 적혀져 있다. 『湖南節義錄』에는 적송의 조부인 창랑공과 적송의 부친인 정유성의 기사만 다루어져 남아 있다.

적송의 부친 정유성은 정유재란 당시 義穀을 모아서 군량에 충당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면 임진왜란도 당시에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家狀에 의하면 1636년에 병자호란 당시 옥과현감 이흥발, 순창현감 최운, 한림 양만용 등 여러 사람들과 김종지, 하윤구, 족제인 정호민 등과 함께 뜻을 모아서 의병을 이끌고 북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주에 이르러 남한산성 아래서 인조의 항복 소식을 듣고, 북향 통곡하고는 돌아와서 아주 숨었다.

병자호란이 지난 후에 고향에 돌아 온 적송은 거처를 同福의 노루목 적벽 부근으로 완전하게 옮긴 것 같다. 그 전에는 노루목 적벽과는 약 4백여 미터 정도 떨어진 창랑 적벽에 살고 있었다. 그의 家狀을 보면 이미 창랑공이 남녘 땅이 소란스러워지자 赤壁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적송 대 이전에는 노루목 적벽에서 십여 리 떨어진 滄浪 적벽에 살고 있었다. 창랑에서는 조부인 정암수가 滄浪亭을 짓고서 살았다.<sup>6)</sup>

그는 동북현 내서면 학탄, 즉 학여울에 거처를 정하였다. 지금 대표적인 적벽인 노루목 적벽(장항적벽) 인근이다. 그 후 약 10여년 후 1646년에는 강가에 望美亭이라는 누정을 세웠다.<sup>7)</sup> 그는 적벽 공간에 은거하면서 문학 활동에 전념하였는데, 그가 남긴 많은 수의 문학 작품에서 잘 알 수 있다.

그의 문집에는 상당수의 한시가 실려 있다. 아울러 「憂國歌」, 「忠孝歌」 등의 작품도 남아 있었는데 1669년 기사년에 일어난 宗家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sup>8)</sup> 이 두 작품은 아마도 가사체 작품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의 문집 『적송유집』에는 현재 60여수가 넘는 그의 한시가 남아 있다. 오언

6) 적송 정지준은 「赤松遺集」이라는 문집이 남아 있는데, 조부인 창랑 정암수의 문집인 『滄浪遺集』의 부록에 함편되어 있다. 현재 적송의 일대기나 문장은 이 「적송유집」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7) 그 누정의 네 벽에는 각각 그림을 그렸는데, 동쪽 벽에는 노중련이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남쪽은 문천상이 하늘을 쳐드는 모습을, 서쪽에는 형가가 소매 속을 더듬는 모습을, 북쪽에는 도연명이 취하여 누워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 네 벽의 그림에서 각각 상징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

8) 정규철, 앞의 책, 111면, 「망미정 사실」에 실려 있다.

절구, 오연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등 시체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절구가 50여수, 율시가 14수정도 된다. 그 시들은 대체로 적벽 공간에서 지어진 것이 많아서, 당시 적벽의 분위기가 물씬 남아있다. 그의 문집에는 적벽의 사계를 읊은 네 편의 오언절구가 가장 앞에 실려 있다. 다음은 그 중 첫 번째 시이다.<sup>9)</sup>

春 暝

獨坐幽篁裏	깊숙한 대숲 속에 홀로 앉으니
茅簷欲二更	띠 풀 처마가 어두워지네
春庭恒寂寂	봄의 뜰은 늘 적적하여서
惟有山禽鳴	오직 산새들 소리뿐이라네

이 시는 적벽의 사계를 읊은 시이다. 그런데 이 시의 起句는 알다시피 유명한 王維의 시 구절이다. 그 시구를 빌려와서 시작을 하면서 깊은 적벽의 풍경 그리는 듯하다. 적적하지만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자연스러운 의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적송은 望美亭을 짓고서, 문학 활동을 하였다. 1964년 봄에 편찬된 『同福誌』에 의하면, 적벽에는 '赤壁八景'이란 이름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는 지방에만 실려 있는 말인데, 그의 문집 『적송유집』에는 그 작품이 실려 있지 않다.<sup>10)</sup> 여기서 적벽 팔경은 降仙明月, 喚鶴清風, 金沙漁火, 寒庵曉鐘, 寒山瀑布, 華表歸雲, 姑蘇落照, 黃泥雪景 등의 여덟 군데의 경치를 가리킨다. 아울러 적벽이 있었던 同福에는 이른바 '福川八景'이라고 하여 여덟 군데의 명승을 거론하고 있다.<sup>11)</sup>

9) 『滄浪集』의 부록으로 「赤松遺集」이 실려 있다. 그 곳에 실린 첫 번째 시이다.  
 10) 이는 팔경시의 전통을 이어서, 적벽 공간의 팔경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에는 제봉 고경명의 「滄浪六詠」이라는 연작시가 있어서, 창랑의 여섯 경치를 읊고 있었다. 적벽 공간으로 하면 '赤壁八景'은 이 '滄浪六詠'의 전통을 발전시킨 것이지만, 팔경 문학으로 말하자면 송강 정철의 '關東八景'을 이어 받아서, 적벽 팔경 문학을 성립시켰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작품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17세기 전반의 적벽문학은 적송 정지준의 문학 활동이 큰 족적을 남겼다. 물론 적송보다 약간 앞세대인 河錦沙와 羅滄洲 등 여러 작가들도 작품을 남기고 있어서, 적벽 문학이 크게 발전하여 나가는 기틀을 잘 마련하고 있었다.<sup>12)</sup>

## 2.2. 농암 김창협 赤壁 문학

17세기 전반에 창원 정씨들의 주요 작품에 이어서, 17세기 후반에는 문곡 김수항을 비롯한 안동 김씨 가문의 적벽 문학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 가운데 농암 김창협 赤壁 문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암을 비롯한 안동 김씨 인물들에 의하여 무등산권 화순 적벽이 京鄕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문곡 김수항은 전라도와 매우 관련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육조의 판서를 역임하는 등 요직에 있었다. 그러다가 1689년 太祖御容을 전주에 모셔놓고 돌아오는 길에 기사환국이 일어나 南人이 재집권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수항은 탄핵을 당하여, 위리안치되었던 유배지 나주를 거쳐 다시 진도로 유배를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하였다.<sup>13)</sup>

문곡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赤壁과 관련하여서도 몇 편이 남아 있다.<sup>14)</sup> 처음 그의 적벽 시는 중국의 적벽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이 그 시이다.

赤壁泛舟 課作 적벽에서 배를 띄우다 과작<sup>15)</sup>

萬里黃州客 만리 황주로 귀양 온 유배객

11) 『同福誌』, 연환자본 1책, 同福鄕校刊. 1964.

12) 하운구(河潤九, 1570-1646)의 『錦沙集』에, 나무송(羅茂松, 1577-1653)의 『滄洲先生遺稿』에 적벽 관련 여러 작품이 실려 있다. 17세기에도 이미 문학 공간으로서 적벽이 널리 확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 김대현 외, 『호남유배인 기초목록』, 호남지방문화연구소 편, 전남대출판부, 2017. 49면.

14) 그러나 문곡은 직접 무등산권 화순 적벽을 가지 못하였다고 생각되었지만, 적벽을 방문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與金文谷相酬於赤壁」이라는 시가 적송의 「적송유집」에 실려 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5) 『文谷集』 권2에 실려 있다. 이하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문을 참조하였다.



三年赤壁秋	적벽에서 삼 년을 지냈다네
湘潭漁父問	상담에서는 어부가 물었고
采石謫仙遊	채석강에선 적선이 노닐었지
夢罷人疑鶴	꿈 깨어 도사가 학인 줄 의심하니
江空月在舟	강엔 달빛 실은 빈 배만 떠 있네
涼風起天末	서늘한 바람이 하늘가에서 불어오니
先憶鳳凰樓	먼저 봉황루 생각이 나네

이 시는 黃州로 귀양 온 蘇軾이 적벽에서 배를 띄우면서 유람하였던 내용을 지은 「赤壁賦」와 屈原이 소요하고 李太白이 노닐었던 장소 등을 읊은 시이다. 전라도 적벽을 그리고 있는 작품은 아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적벽은 소동파가 귀양을 갔던 중국의 황주 적벽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물론 무등산권 동북에도 적벽이 있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다.<sup>16)</sup> 다음의 시는 전라도 적벽을 상상하며 지었지만, 실경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동북의 적벽에 자못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곳에 직접 찾아가 소동파의 놀이를 이어 갈 길이 없었다. 재미삼아 절구 한 수를 지어 흥을 부쳐 보다가 운로 사포에게 보내 화답을 구하였다(久聞同福赤壁, 頗有勝槩. 無由致身其間, 以續坡仙之遊. 漫吟一絕寄興. 仍奉雲老使君要和)<sup>17)</sup>

水落山高赤壁秋	물이 줄어서 산이 높은 적벽의 가을이여
福川何似舊黃州	동북천은 어떻게 옛 황주 땅과 비슷할까
騷人不及橫江鶴	문인들은 강을 가르는 학에는 못 미치지만
飛度臨臯十月舟	시월의 배를 타고 임고에 날듯이 건넌다지

16) 이는 안동 김문의 대표 인물이자 문곡의 종조부인 金尙容의 시가 남아있는 것으로도 이 미 안동 김문에 무등산권 적벽이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赤松遺集」에 김상용의 「赤壁題詠」 시가 실려 있다.

17) 『文谷集』 권4에 실려 있다. 雲老 사포는 趙景望(1629~1694)이다. 그의 호는 奇篙이고, 雲老는 그의 자이다. 본관은 林川이며, 1677년(숙종3) 6월 22일 同福縣監에 임명되었다. 『農岩集』에는 「送趙使君率同福序」라는 작품이 남아있기도 하다.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문을 참조하였다.

이처럼 문곡은 화순 적벽에는 직접 가지 못하였지만, 그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적벽 문학은 대 문장가이자, 문곡의 아들인 농암, 삼연 대에 와서 활짝 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1677년 겨울 영암에서 부친을 뵈고 귀향하는 길에 적벽에 들른다. 당시 무등산권 화순 적벽은 서울의 문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 다음은 그들의 적벽시 가운데 대표적인 한 수이다.

赤壁 적벽<sup>18)</sup>

連峯無數上青天	연이은 봉우리 수없이 푸른 하늘에 치솟고
下有滄浪一道川	그 아래 한 줄기 쪽빛 물결 감아도네
削出層巖類神鬼	깎아지른 험한 바위 신기한 모습 영락없고
結爲空翠似雲煙	맺혀 서린 산 안개 구름 연기 흡사하네
松杉盡向潭中寫	소나무 전나무들 못 속에 다 비쳐 있고
日月疑從石上懸	해와 달은 그야말로 돌 위에 매달린 듯
見說陰厓有巢鶴	높은 비탈 저 위에 학의 둥지 있다 하니
夜深應夢羽衣仙	깊은 밤 잠자리에 신선의 꿈을 꾸리

이 적벽 시 마지막 구는 학창의를 입고 꿈속에 나타났다는 赤壁故事를 읊은 것이다. 이 시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차운을 하는 대표적인 적벽시가 되었다. 이 시는 실경을 아름답게 읊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에서는 ‘신선의 꿈’이라는 도가적 의경을 그리고 있다. 신선과 같은 도가적인 색채는 적벽 문학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농암은 적벽 지구에서 여러 편의 한시를 남기고 있다.<sup>19)</sup> 농암의 이 시는 적벽을 찾았던 삼연 김창흡에 의하여 또다시 차운된다.<sup>20)</sup>

18) 『農岩集』 권1에 실려 있다. 이하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문을 참조하였다.

19) 『農岩集』 권1에 「勿染亭」 등 여러 편의 시가 남아 있다. 이 시도 앞의 시 「赤壁」과 마찬가지로 귀향길에 들러 지은 것이다.

赤壁次仲氏韻 적벽, 중형의 시에 차운하며<sup>21)</sup>

馬上看看壁到天	말 위에서 보니 절벽은 하늘에 닿았는데
幾尋長影臥晴川	몇 길이나 되는 긴 그림자는 푸른 물에 누워있네
層層負勢排蒼木	층층히 쌓인 곳에 푸른 나무들이 가지런하고
隱隱橫紋起紫烟	은은한 가로 무늬 위에 붉은 연기 피어나네
恍惚天台橋上望	황홀하구나 천태교 위에서 바라다보니
依稀巫峽障中懸	아마도 무협외의 벵랑 속에 걸려 있는 듯
雲根側畔樽罍滿	구름 내려서 기울어져 술잔에 가득차고
句漏南昌坐列仙	남창에는 여러 신선들이 앉아 있는 듯하네

이 시에서도 마지막 구절에 남창에는 여러 신선들이 앉아 있는 듯하다고 하였다. 도가적인 신선의 세계를 잘 이어받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안동 김씨 가문의 적벽 관련 시들, 특히 농암의 적벽 시는 그 후 많은 시인들의 차운을 이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전라도 同福의 赤壁이 경향에 더욱 더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3. 18세기 무등산권 赤壁 문학

무등산권 화순 적벽은 18세기에도 여러 문인들에 의하여 문학 활동이 이어진다. 특히 서울 近畿의 문인으로 호남을 여행하면서, 적벽 문학을 남긴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8세기 전기에 호남을 여행하였던 담헌 이하곤, 18세기 후반에 호남을 여행하였던 다산 정약용이었다.

물론 18세기에는 老村 林象德, 春洲 金道洙, 寤齋 趙正萬 등 많은 시인들이

20) 농암의 年譜에는 1677년 농암이 27세 때, 적벽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때 동생인 夢窩 金昌集, 圃陰 金昌楛와 함께 하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三淵은 그 후 다른 시기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21) 『三淵集拾遺』 권10에 실려 있다.

무등산권 적벽을 유람하면서 그에 대한 시를 남기고 있다. 특히 寤齋는 「福川同遊記」라는 여행기를 남기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담헌과 다산의 호남 여행에 따른 적벽 작품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 3.1. 담헌 이하곤의 赤壁 문학

담헌 이하곤은 경주 이씨로 서인 소론계 학자였지만, 노론계와 매우 가까웠으며, 특히 남인들과도 당색을 초월하여 교유하였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학문과 예술에 힘썼으며, 藏書樓를 만들어 많은 書冊을 모으기도 하였다. 또한 1722년에 남쪽인 호남을 여행하면서 「南行集」과 「南遊錄」이라는 중요한 호남기행작품을 남긴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가 남쪽을 여행한 것은 장인의 유배지에 찾아가는 여정 때문이었다. 담헌의 부인 은진 송씨는 玉吾齋 宋相琦(1657-1723)의 딸이었다. 옥오재는 1722년 신임사화에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sup>22)</sup> 또 담헌의 처조부는 송규렴이었는데, 그의 처남이 바로 문곡 김수항이었다. 담헌은 그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젊어서 농암 김창협(1734-1808)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담헌은 김창협, 김창흡으로부터 적벽 관련 많은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sup>23)</sup>

담헌은 3개월간의 호남여행을 하면서, 많은 시문과 함께 12월 5일의 적벽 유람일기, 그리고 「赤壁歌」를 남겼다.<sup>24)</sup> 특히 이 적벽가는 57구에 이르는 장

22) 김대현 외, 『호남유배인 기초목록』,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편, 전남대출판부, 2017, 130면.

23) 담헌 이하곤에 대한 첫 연구는 이선옥의 「담헌 이하곤의 회화관 연구」(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7)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지금까지 10여명 내외의 연구자들이 연구 논문을 썼다. 그 가운데 이상주는 「담헌 이하곤 문학의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으며, 담헌의 「南行集」과 「南遊錄」을 번역하여, 『18세기 초 호남기행』(이화문화출판사, 2003)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담헌 연구에 큰 업적을 이루기도 하였다. 최근에 담헌의 호남 여행과 관련되어서도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김덕진의 「이하곤의 호남유람과 소재원 방문」(『지역과 역사』 26, 2010)이 있고, 이경순의 「18세기 전반 이하곤의 호남 여행과 사족연망」(『동국사학』 53, 동국사학회, 2012) 등이 있다.

24) 『頭陀草』 冊十 詩 南行集[下] 「赤壁歌」

편의 작품으로 주목되는 노래이다.

昔者蘓子瞻	옛날에 소자침이
秋月游赤壁	가을에 적벽을 유람할 때
擊楫溯空明	밝은 달 아래 노 저어 올라가면서
吹簫江月白	달 밝은 강에선 통소를 불었다네
歸來仍作赤壁賦	돌아와서 적벽부를 지었는데
至今讀之爽心魄	지금 읽으니 마음이 상쾌하여
恍如抱明月挾飛仙	밝은 달을 안고 나는 신선을 옆에 끼고
翱翔游戲於三島十洲之側	신선의 세계로 날아가서 노닌 듯 황홀하였네

(하락)

적벽은 늘 仙境, 神仙의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하나의 문학 공간이 도가적 색채를 짙게 드리운 곳도 무척 드문 일이다. 바로 赤壁은 늘 신선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담헌은 「적벽가」 외에도 농암의 적벽 시에 차운시를 남긴다.

赤壁, 奉次農巖先生韻<sup>25)</sup> 적벽, 농암선생의 운에 삼가 차운을 하면서

巖岩危壁上參天	뾰족한 바위 깎아지른 절벽 하늘에 닿았는데
爲有深根直插川	깊은 바위 뿌리는 시냇물에 박인 듯하네
勢已削成難着樹	깎아지른 절벽엔 나무가 붙어 있기 어렵고
色如洗淨自無烟	빛같은 아주 맑아서 뿌연지가 않다네
未具扁舟能夜泛	작은 배 갖추어 한 밤 중에 띄우지도 못하면서
空教明月只秋懸	공연히 밝은 달만 가을 하늘에 달려있게 하였네
萬里黃岡疑在此	만리 황주 땅이 여기에 있는 것 같으니
長吟二賦憶蘓仙	길게 두 부를 읊으면서 소동파를 생각하네

이 시는 농암의 적벽시를 차운한 시이다. 농암의 적벽시는 많은 문인들에

25) 『頭陀草』 冊十 詩 南行集[下], 이상주, 앞의 책에서 참조.

의하여 차운되었는데, 담헌의 시도 그 중 대표적인 차운시라고 할 수 있다. 담헌은 이 밖에도 농암의 「勿染亭」 시에도 차운을 한다.

아울러 그의 호남 기행문인 「南行錄」의 12월 5일자 기록은 적벽을 여행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 기록은 고을의 원인 이현경 효백을 위로한 일, 이두경 응철을 만난 일 등을 적었는데 모두 소시적의 친구였다고 하였다. 웅성산, 강선대를 구경하고 적벽에 나아가서 회포를 읊은 이야기, 신보와 술을 한잔 한 이야기, 소자침이 노닌 것처럼 적벽에서 논 이야기를 적었다. 창랑정, 물염정을 거처서 서봉사로 간일까지 적고 있다.<sup>26)</sup>

적벽의 산문 기록은 한시 작품에 비하여 적게 남아 있는 편이다. 임란 이전에는 고경명의 「遊瑞石錄」에 있는 적벽 관련 기록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학봉 김성일의 「遊赤壁記」가 남아 있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는 이들 산문에 이어진 첫 번째 작품으로는 담헌 이하곤의 「남행록」 속의 赤壁기록을 들 수 있다. 비록 이 담헌의 유람기는 짧은 일기이지만,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 3.2. 다산 정약용의 赤壁 문학

18세기 후반이 되면 다산 정약용의 적벽 관련 작품들이 주목할 만하다. 다산은 화순 현감으로 있던 부친을 따라서 화순에 오게 된다. 다산은 그 당시 화순의 東林寺에서 학업을 하던 중에 무등산을 등정하는 등, 인근의 여러 명소들을 찾아간다. 그 한 경우로 적벽 지역을 유람하였고, 몇 작품들을 남기고 있다. 먼저 그의 작품으로 勿染亭에 대한 시가 남아 있다.

遊赤壁亭子 적벽강 정자에서 노닐며<sup>27)</sup>

歷歷秋沙細選分      해맑은 가을 모래에 가는 길이 나 있고

26) 이상주, 앞의 책, 259면 참조.

27) 『다산시문선』 권1에 실려 있다. 이 시는 '勿染亭으로 同福縣에 있다'라는 주가 붙어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참조하였다.

洞門青翠欲生雲	동문의 푸른 산엔 구름이 피어나네
溪潭曉浸臙脂色	새벽녘 시냇물엔 연지 빛이 잠기었고
石壁晴搖錦繡文	깨끗한 돌벼랑은 비단무늬 흔들린다
刺史燕游誰得趣	수령의 한가한 놀이 누가 흥취 즐기나
野人耕釣自成群	시골 사람 무리지어 밭 갈고 낚시하네
獨憐山水安孤僻	사랑스러워라 고운 산수 외진 곳에 자리잡아
不放名聲與世間	명성 함부로 흘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네

(하략)

勿染亭에 대한 다산의 시는 아름다운 경치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고운 산수가 외진 곳에 있어서, 아직 세상에 널리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 시골 사람들이 무리 지어, 밭 갈고 낚시를 한다고 하였는데, 다산이 생각한 태평성대의 농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적벽의 물염정에 대한 작품은 이와 같은 한시 외에도, 「遊勿染亭記」라는 記文이 남아있다.<sup>28)</sup> 1778년에 물염정을 다녀와서 지은 기문이다. 기문은 처음 누정의 위치, 여행 일시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물염정에 대한 평가와,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여행을 바로 시도 하여야 된다는 말을 적고 있다. 드디어 물염정에 올라 적벽을 얼굴로 한 적벽 경관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sup>29)</sup>

이처럼 다산의 적벽 문학은 18세기 후반의 적벽 풍경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물염정을 여행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의 삶의 생활 현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여서 실학자다운 면모가 보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28) 『다산시문집』 권13에 「遊勿染亭記」, 「遊瑞石山記」, 「東林寺讀書記」 등 관련 기문이 실려 있다.

29) 勿染亭 문학에 대하여는 권수용의 「회순 勿染亭과 적벽문화」(『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에 비교적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4. 19세기 무등산권 赤壁 문학

18세기 적벽 문학에 이어서, 19세기에도 물론 여러 적벽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적벽 지역에서 생애 후반을 보냈던 김삿갓, 그리고 매천 황현의 시들이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 밖에도 농암의 적벽시에 차운을 한 淵泉 洪奭 周나 沙厓 閔胄顯, 蓉巖 丁燠 등의 적벽시들이 있다. 또 고경명의 후손인 晦雲 高濟琳은 「赤壁賦」를 남기기도 하였고, 淵泉 洪奭周의 외손인 眉山 韓章錫은 「江南幹事錄」이라는 적벽 기행문을 남기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19세기에도 여러 많은 문인들에 의하여 무등산권 적벽 관련 시문이 창작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난고 김립 즉 김삿갓의 작품과 매천 황현의 작품을 간단하게 들면서, 19세기 무등산권 적벽 문학의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4.1. 난고 김립의 赤壁 문학

흔히 김삿갓으로 알려진 金炳淵, 金笠은 1807(순조7)년에 태어나 1863(철종14)에 운명한 방랑시인이다. 19세기 중엽에 화순 동북으로 들어와서 소유하다가, 창원 정씨 종가집 사랑채에서 운명하였다고 여러 구전을 통하여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구전들은 이응수 선생이나, 그 이후의 여러 문인들의 책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화순의 향토사학자인 문제선 선생이 일찍이 이를 정리하여 그의 초분지에 대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sup>30)</sup>

그런데 그가 동북으로 들어온 일도 실은 무등산권 화순 적벽이라는 문학 공간이 그를 이끌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김삿갓의 화순관련 적벽 관련 시가 남아있지 않았다.<sup>31)</sup>

30) 문제선, 「김삿갓 初墳地에 대한 고찰」, 전남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 제1회, 1999.

31) 기존에 화순에서 발견된 김삿갓의 시라고 일부 연구자들에게 알려진 시들은 부분적으로 중국 唐代의 錢起, 韓愈의 시를 적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김삿갓의 동북 적벽 관련시는 몇 편의 동시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몇 해 전에 필자는 여러 필사 시집 가운데서 「將遊赤壁歎有客無酒」라는 김삿갓의 시를 발견하였다. 그 시의 창작 연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시 제목 아래 '김병연의 「遊赤壁」시는 옛날 자침(蘇東坡)의 유람을 본뜬 것이다' [金炳淵遊赤壁擬古子瞻遊]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김삿갓의 적벽 유람시임을 알 수 있다.

'적벽을 유람하려는데 나그네만 있고 술이 없는 것을 한탄하다'라는 「將遊赤壁歎有客無酒」는 東詩이다. 이 시는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다음은 그 첫 번째 단락이다.

古跡回間簫歌夜	옛 자취를 돌아보니 텅소 노래하는 밤인데
鷺飛鳥去蒼茫洲	새와 까마귀 날아가는 푸르고 아득한 물 섬이네.
秋風岳陽上詩杜	가을바람 부는 악양루에 시 올린 두보이고
夕陽滌亭歸醉歐	석양의 저정에서 취해 돌아간 구양수라네.
虛汀八月不見人	빈 물가는 팔월이지만 사람을 볼 수 없고
露葭蒼蒼江水悠	이슬 맞은 갈대만 푸룻푸룻 강물은 유유히 흐르네.

위는 시의 첫 번째 부분이다. 흔히 첫구, 첫구 받침, 立題 등으로 불리는 데, 이 부분에서는 詩題와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팔월의 밤에 유람을 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찍이 두보가 악양루에서 시를 짓듯, 구양수가 저정에서 취하였던 기분으로 유람을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음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다.

蘭漿已斷望美歌	목란의 삿대엔 이미 망미가가 끊어지고
斗酒全空歸婦謀	한 말 술이 다 떨어져 부인에게 가서 상의를 하네.
江亭勿染亦無聊	강가 정자 물염정 또한 무료하니
主去多年花木幽	주인이 떠나간 지 여러 해인데 꽃나무만 우거졌네.
浮雲萬里浪跡通	뜬 구름은 만 리에 낭자한 자취를 통하고
明月千年虛影留	밝은 달은 천 년에 허공의 그림자만 남겼네.

이 시에서 望美歌는 17세기 적송 정지준이 지었던 望美亭이라는 적벽의 정자에서 들리는 노래와도 연관이 있는 말이다. 또한 적벽에는 勿染亭이 있는데, 주인이 떠나간 물염정은 무료하기만 하다고 하였다. 모두 지나간 옛 일에 대한 회고의 정이 나타나있다. 마지막 구절 ‘뜬 구름은 만 리에 낭자한 자취를 통하고, 밝은 달은 천년에 허공의 그림자만 남겼네.’라는 웅혼한 시구를 남겨서 대미를 장식하였다.<sup>32)</sup>

김삿갓은 조선 후기 19세기의 대표적인 한시인이다. 그런데 아직은 그의 일생에 대하여 전기적인 면에서나, 혹은 작품 자체의 자료학적인 면에서나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sup>33)</sup> 앞으로 더욱 더 완전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만 할 것이다.

#### 4.2. 매천 황현의 赤壁 문학

19세기 후반에도 많은 무등산권 적벽 관련 시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매천 황현의 적벽 관련 작품들이 주목할 만하다. 매천은 1895년 그의 나이 41세 때에 적벽을 유람하고 나서, 관련되는 작품들을 여러 편 남겼다. 먼저 농암의 적벽시에 차운을 하여서, 농암 적벽시가 계속하여 차운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赤壁亭謹次金農巖先生韻 적벽정에서 삼가 김농암 선생의 시에 차운하다<sup>34)</sup>

壁勢盤盤欲引天 암벽 모양은 판판하지만 하늘을 끌어당기듯

- 
- 32) 김립은 일반 한시 약 250여수가 남아 있는데, 그의 東詩 작품들도 대략 그 정도의 분량이 남아 있다. 다만 그가 적벽에서의 문학 활동이 東詩로만 남아 있어서, 이 작품들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 33) 호남지방문화연구원에서는 2007년 광주 아시아문화의 전당 홍보관에서 김삿갓 탄생 200주년 기념 전시회를 하였다. 당시 김삿갓의 위의 적벽 시를 공개하였고, 많은 새롭게 발견된 김삿갓의 동시 자료를 전시하기도 하였다.
- 34) 「乙未稿」(1895년, 고종32) 매천의 나이 41세 때 지은 시고이다.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문을 참조하였다.

雲根環鎖一灣川	안개구름은 빙 둘러 한 구비 냇물에 잠기는 듯
隔江人語答清響	강 건너 사람 소리는 메아리로 맑게 울리고
終古夕陽生紫烟	예로부터 석양빛은 붉은 놀을 만들었겠지
楓氣橫秋無際上	가을 하늘 가득한 단풍 기운은 끝이 없는데
鶴巢如月自高懸	달덩이 같은 학 동지는 높이 달렸구나
此間定勝黃州境	이곳 경치가 분명 황주의 승경보다 나으니
惱殺當年作賦仙	그 때에 부 짓던 신선은 마음이 괴롭겠네

매천은 위의 시처럼 농암의 적벽 시에 차운을 하였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적벽이 황주의 승경보다 낫다고 하였다. 그 때에 賦짓던 신선이란, 바로 소동파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가 이곳 무등산권 화순의 적벽을 와 보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괴로울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매천집 권6에는 그의 記 문학 작품으로 적벽을 유람하고 남긴 「赤壁記」가 있다. 이 기문의 특징은 대상 경치를 잘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적벽의 형세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두에는 유람 시기와 적벽의 위치를 간략하게 말하였다. ‘을미년(1895, 고종32) 9월에 나는 同福縣 赤壁을 유람하였다. 이 벽은 동북현에서 서북쪽으로 20리쯤에 있다.’라고 하여 시기와 위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내력을 설명하면서, 壁의 형세를 표현하고 있다.<sup>35)</sup>

벽의 형세는 곧바로 깎아지른 듯하니, 비유하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먹줄을 튕긴 듯 일직선이며, 높이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게 완전히 수직이다 보니 도리어 고개를 숙인 듯한 모습이다. (중략) 벽은 본래 일정한 색이 없이 푸르고 검고 흰 것이 뒤섞여 있다. 하지만 은은하고 성대하게 가로 무늬를 이루고 있는 색은 대부분 붉은색이다. 그리고 한창 가을이 깊어지면 자주색 끈이 늘어진 것처럼 늙은 이끼가 길게 드리워진다. (중략)

또 매천의 이 기문의 마지막 부분에 삼연 김창흡이 지은 농암의 적벽 시에

35) 『梅泉集』 권6, 「赤壁記」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참조하였다.

대한 차운시의 첫 구절을 들고 있어서 주목된다. 말을 타고 장항 적벽을 들어서는 순간, 그 적벽은 하늘 높이 솟아서 절경에 압도되었다는 설명이다.

강가에 자그마한 정자가 있는데, 부침(浮沈)을 되풀이 한 탓에 읊어 놓은 시가 많다. 그중에서 삼연(三淵)의 율시(律詩) 첫 구가 가장 묘(妙)를 얻었다. “말 위에서 바라보니 벽이 하늘에 닿았네.[馬上看看壁到天]”라는 구절이다. 이 한마디 말로 다 표현하였고, 나머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절경에 압도된 탓이리라.<sup>36)</sup>

19세기 적벽문학으로는 위에서처럼 난고 김립의 적벽 관련 東詩들이, 후반에는 매천 황현의 적벽관련 한시와 기문들이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특히 매천의 「赤壁記」는 적벽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조선 후기 적벽문학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임란 이후 17세기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무등산권 화순 적벽 공간의 문학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무등산권 적벽 문학은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있기에 임란 이전의 적벽 문학, 임란 이후 조선 후기의 적벽 문학, 20세기의 적벽 문학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임란 이후, 말하자면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대표적인 적벽 문학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적벽 관련 문학 작품은 조선 후기 내내 계속 이어지면서 상당수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전반에 여러 문인들의 적벽 시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적벽에 근접하

36) 『梅泉集』 권6 「赤壁記」에 대한 한국고전번역원 번역문에서는 ‘강가의 자그만 정자를 勿染亭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삼연의 위의 시를 勿染亭에 대한 시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는 노루목 적벽에 있는 望美亭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여 생활하였던 창원 정씨 가문의 문인들에 의하여 적벽 관련 한시들이 주로 창작되었다. 그 중심에는 적송 정지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반에는 안동 김씨 가문의 문인들이, 특히 농암 김창협이 적벽시가 창작되어, 오래도록 문인들에 의하여 차운시가 이루어졌다.

18세기에는 담헌 이하곤의 호남 여행으로 인해, 기행문인 「南遊錄」 소재의 적벽 유람 일기와 함께 한시들이 지어지게 되었다. 후반에는 다산 정약용의 화순 여행으로 적벽 관련 작품들도 여러 편 지어졌다. 또한 「遊勿染亭記」라는 적벽 기행문도 나타나서 물염정 문학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19세기에는 김립의 적벽 관련 東詩 작품들이 나타났다. 기존에 김립의 화순이나 적벽 등에 대한 시 작품이 없었기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김립의 적벽 관련 동시가 몇 편 발견되어서, 적벽 문학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매천이라는 걸출한 시인이 적벽을 유람하면서, 「赤壁記」를 남기고 있으며 관련되는 한시 작품들을 남기고 있었다.

대개는 소동파가 그러하였듯이 적벽 공간에 대하여 神仙 세계를 그리는 점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가끔 유가적이거나 실학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적벽의 아름다운 實景을 그리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향후 20세기의 ‘赤壁吟社’를 비롯하여, 적벽 관련 작품들이 조사되고 정리 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부터 조선 후기, 20세기 등 모든 적벽 관련 문학들이 집성되어 나가면, 무등산권 화순 적벽 문학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赤壁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학 공간이다. 그 문학적인 성취의 한가운데 무등산권 화순 적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작품들을 통하여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高敬命, 『國譯 霽峯全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재간행.  
『金笠 東詩 관련 필사자료집』(필자 소장)  
金壽恒, 『文谷集』  
金昌協, 『農岩集』  
李夏坤, 『頭陀草』  
丁巖壽, 『滄浪集』  
丁若鏞, 『茶山詩文選』  
丁之雋, 『滄浪集』附, 『赤松遺集』  
崔山斗, 『新齋先生文集』  
黃玆, 『梅泉集』

### 2. 논저

- 권수용, 「화순 勿染亭과 적벽문화」,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133-163면.  
(UCI: G704-001257.2011..44.003)  
김대현 외, 『국역 무등산유산기』, 광주민속박물관, 2010.  
김대현, 「조선전기 ‘무등산권 赤壁’ 공간의 문학작품 연구」,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4,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91-118면.  
(UCI: G704-001062.2014..34.013)  
김대현 외, 『호남누정기초목록』,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편, 전남대출판부, 2015.  
김대현 외, 『호남유배인 기초목록』, 호남지방문화연구원 편, 전남대출판부, 2017.  
김덕진, 「이하곤의 호남유람과 소재원 방문」, 『지역과 역사』 26, 부경역사연구소, 2010, 211-236면.  
(UCI: G704-001416.2010..26.009)  
김재현, 「한중 ‘赤壁’공간 이미지와 예술작품 비교 고찰」, 『비교문화연구』 19,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0, 7-24면.  
(UCI: G704-002033.2010.19..003)  
김주순, 「蘇東坡〈赤壁賦〉對朝鮮漢詩的影響」, 『중국문화연구』 16, 중국문화연구

학회, 2010, 131-148면.

(UCI: G704-001645.2010..16.012)

문제선, 「김삿갓 初墳地에 대한 고찰」, 전남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 제1회, 1999.  
이경순, 「18세기 전반 이하곤의 호남 여행과 사족연망」, 『동국사학』 53, 동국사  
학회, 2012, 275-314면.

(UCI: G704-SER000009711.2012..53.010)

이상주, 『18세기초 호남여행』, 이화문화출판사, 2003.

정규철, 『역사 앞에서』, 심미안, 2013.

정세진, 「14-16세기 조선과 일본의 蘇軾 관련 詩會와 그들이 공유한 蘇仙의 의  
미」, 『중국문학』 86, 중국문학회, 2016, 1-23면.

(UCI: G704-000174.2016.86..005)

조규백, 「고려시대 문인의 소동파 시문 수용 및 그 의의(1)」 『퇴계학과 한국문  
화』 3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6, 329-362면.

(UCI: G704-001229.2006..39.011)

조규백, 「고려시대 문인의 소동파 시문 수용 및 그 의의(2)」 『퇴계학과 한국문  
화』 40,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7, 183-214면.

(UCI: G704-001229.2007..40.009)

| Abstract |

## **A Study on Literary Works for Jeokbyeok(赤壁, The Red Cliff) in Mt. Mudeung(無等山) A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Dae-hyu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were many literary works for Hwasun Jeokbyeok(赤壁, The Red Cliff) around Mt. Mudeung(無等山) area. In this paper, I aim to briefly review the major literary works on Jeokbyeok during the late 17th, 18th, and 19th centuries.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here was Jung Ji-Jun(丁之雋) who worked on Jeokbyeok literature. He built pavilions such as Manghyangjung(望美亭) and did various literary activities.

In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Kim Chang-Hyeop and Kim Chang-Heup from Andong Kim family wrote some interesting works on Jeokbyeok and they have since become widespread.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Yi Ha-Gon(李夏坤)'s Jeokbyeok literature was important for us. He wrote Yuhonamrock(遊湖南錄), a tourist diary on Honam(湖南) province, and one part of that book was on Jeokbyeok. In addition, he recorded Jeokbyeok tour in 57 long poems titled Jeokbyeokga (Red Cliff Songs, 赤壁歌). In the latter half of the 18th century, we can focus on Jeong Yak-Yong(丁若鏞)'s works on Jeokbyeok. It is known that he ascended Mudeung Mountain and also visited Jeokbyeok. At Jeokbyeok, he wrote not only an excursion record called Yumulyeomjeonggi(遊勿染亭記), but also a few Hansi(漢詩, Chinese poem) on Jeokbyeok.

In the 19th century, Kim Sag-Gat's Hansi can be also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literary works. He left a few pieces of Dongsi(東詩, Eastern poem) related to Jeokbyeok.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Hwang Hyeon(黃玹) traveled to Jeokbyeok at the age of 41, and left some works on Jeokbyeok. His work which is called Jeokbyeokgi(赤壁記, Records on Red Cliff) inherited the tradition of Jeokbyeok prose.

Likewise, in the late 17th, 18th, and 19th century, many Jeokbyeok literatures



were published continuous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some of the representative works by period and examine their literary achievements.

**Key words** : red cliff, Jeokbyeok, red cliff literature, red cliff around Mudeung mountain, Hwasun red cliff

